

내 고장 계룡의 명소, 여덟 곳

권태영 | 계룡시 기획감사실 공보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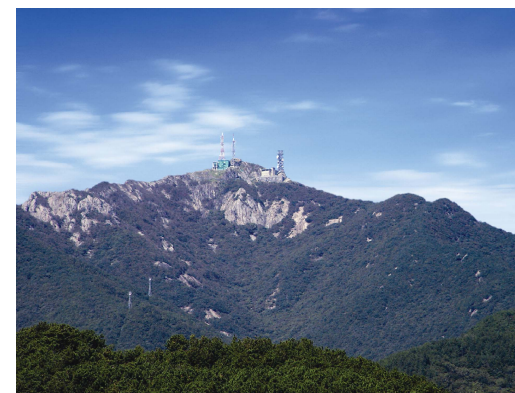
우리나라 어느 곳이든지 그 고장을 대표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유서 깊은 명승고적과 풍광이 아름다운 곳을 8경으로 선정하여 관광명소로 지정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유명한 관동8경, 단양8경, 경포8경 등이 있고, 계룡시 가까운 곳에 공주 계룡산8경, 논산8경, 보령8경 등이 있다.

또한 최근에 드라마, 영화 촬영지나 배경 등 인기 있는 여행지로 각광을 받는 서동요의 부여, 상도의 금산, 이순신의 부안, 겨울연가의 남이섬, 모래시계의 정동진 촬영지 등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계룡시는 국립공원 계룡산과 국방의 요람인 육·해·공군의 3군본부가 위치하고 깨끗한 자연, 천혜의 비경(秘景)이 어우러져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전원·문화·국방도시로 조선 태조 이성계가 새 도읍지로 정해 1년여간 대궐공사를 벌였던 흔적인 『신도내 주초석 및 석재』를 비롯해 조선 예학의 태두인 사계 김장생 선생 고택인 『은농재』, 옛 신도내 대표적 무속계 신흥종파 산실로 유일하게 보존된 『계룡산 삼신당』 등 역사 문화적 자원과 솟을추, 암용추 등의 자연경관의 비경 등이 산재해 있다. 이에 이곳의 역사 문화, 자연자원을 관광자원으로 발굴하고 계룡시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민을 대상으로 추천받아 설문을 실시하여 지난해 말 계룡의 명소 여덟 곳을 선정하였다.

첫째, 민족의 영산인 계룡산 ‘천황봉’



계룡산 주봉인 천황봉은 높이 845.1m로 타 지역 산과 비교할 때 그다지 높은 산은 아니지만 시내에서 보면 선뜻 이마에 닿을 듯 솟아 있어 웅장함을 느낄 수 있다.

계룡산은 역사적으로 삼국시대부터 백제를 대표하는 명산으로 알려져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국가에서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신성한 영산(靈山)중의 하나이다.

천황봉은 4계절 변화가 무쌍한 자연의 신비와 함께 웅장한 산봉우리 위에 아침의 찬란한 해가 솟아올라오면 보는 이의 가슴에 용기와 희망을 주어, 새해 첫날 해맞이 행사가 매년 열리고 있다.

이곳 천황봉 정상부의 지하 20m에 1970년대 군 통신시설 병커와 정상에 중계철탑, 삭도 등이 설치되어 충청의 상징인 계룡산 꼭대기 머리를 짓누르고 있으며 사람의 머리 정수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동굴 병커를 설치 구멍이 나 있는 형상으로 충청인의 정기를 빼앗고 있다는 설이 있어, 2002년부터 1년여간 천황봉 정상부 시설물 이전과 병커에 황토 흙 되메우기 등 원상 복구가 이루어져 계룡산 정기 발산을 유지하고 충청인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조선 태조 때 도읍공사 흔적인 ‘신도내 주초석 및 석재’

조선 태조 이성계가 계룡산 남쪽 신도안에 천도 후보지로 정해 1년여간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지역을 정리하기 위해 목재와 석재 등을 운반하다가 국토 남쪽에 치우치고 조운(漕運)과 용수(用水)가 불편하다는 사유로 중단하고 한양으로 신도읍지를 옮겼다.

이때 대궐터 앞에 주춧돌로 쓰려고 가져다 놓은 주초석 115개가 남아 지방문화재로 지정, 보존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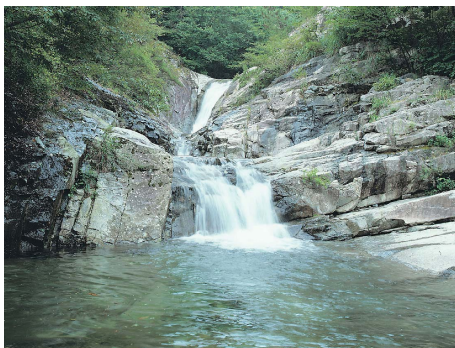
우리지역 명물



으며 이곳 일대가 종로터, 대궐터, 동·서·남·북의 4대 문터 등의 지명이 남아 있다.

당시 대규모 공사의 흔적으로 용동리에 당시 인부들이 짚신에 묻은 흙을 한곳에 털어 봉우리가 되었다는 『신타이봉』이 있다.

셋째, 용이 승천하였다는 전설이 깃든 ‘숫용추’



계룡산 신도안이 비결의 땅으로 알려진 까닭에 절경을 연출하는 곳은 곧 신성한 곳에 걸정을 맺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기도객들이 제일 많이 찾는 명소를 거론 안할 수 없다.

남선면 부남리 대궐터에서 서쪽으로 계곡을 따라 2km 정도 가면 10m 높이의 폭포 아래 화강암 바위 속 약 4m 정도 깊이 웅덩이가 있는데 이곳이 숫용추이다.

계룡산 서쪽에 있다하여 서용추(西龍湫)라고 하며,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숫용이 살다 도를 닦아 승천한 자리라고 전한다.

넷째, 용이 도를 닦았다는 용동리 ‘암용추’

동쪽으로 구룡관사 위쪽 제석사 앞 계곡에는 너비 12m, 깊이 2.5m 정도의 바위로 된 웅덩이가 있다. 이곳이 암용이 도를 닦아 승천한 자리라는 전설이 깃든 암용추이고 동쪽에 있다 하여 동용추(東龍湫)라

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 용추에 들어서면 검푸른 물에 마음을 묻고 촛불 앞에 다소곳이 만복을 빌던 조상들의 민간신앙의 자취(치성 드리던 흔적)를 주변 곳곳에서 아직도 찾아볼 수 있어 용이 승천하였다는 전설과 함께 기복신앙적(祈福信仰的) 모습들은 신도안 지역의 종교적 맥락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섯째, 향기로운 땀이 배여 있는 향적산(香積山) ‘국사봉’

이곳은 계룡산 동쪽 봉우리로 해발 574m이며 계룡시 두마면과 논산시 상월면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공부와 도를 깨우치기 위하여 용맹정진 하는 곳을 일컫는다.

계룡산을 향해 왼쪽으로 연천봉 능선, 오른쪽으로는 천황봉 능선이 장관을 이루는 계룡산을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중턱에는 후천 개벽원리인 정역(正易)을 저술한 일부 김항(一夫 金恒) 선생이 공부를 하였다는 거북바위가 있으며, 입구에 외국인 손님들의 참선 도량으로 유명한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가 있어 외국어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여섯째, 통일과 안보를 상징하는 계룡대 ‘통일탑’

높이 36m의 웅장한 통일탑은 우리 국군의 충·의·지·인·용의 기치 아래 굳게 뭉쳐 철통같이 국가

우리지역 명물



를 보위하고 승리의 영광을 쟁취하여 우리 민족의 번영과 약진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계룡대 내 중앙부에 위치한 통일탑 주변에는 전투기, 전차 등의 무기를 전시해 내방객들에게 안보의 교육장으로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일곱재, 계백 장군의 일이 느껴지는 금암동 ‘천마산’



금암동 계룡시청 뒷산으로 계룡시 금암동 신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서남쪽으로는 백제 계백장군의 충혼이 어린 황산벌이 멀리 바라다 보인다.

또한 서편 기슭으로는 고려 왕건이 하늘의 도움으로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고려를 크게 열어 세웠다는 개태사가 자리하고 있다. 산 정상에는 천마정이라는 정자가 있어 조망이 매우 좋다.

여덟재, 사계 김장생 선생의 고택인 ‘은농재’

조선 중기 예학의 태두인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 선생이 계축옥사로 인하여 이곳에 낙향한 후 남은 여생을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초려 이유태, 신독재 김집 등 당시에 내로라 하는 후진 등을 양성하

며 말년을 보낸 곳으로 조선 중기(1602)에 건립된 건물로써 3천여평 넓은 대지위에 10여채 기와집과 정원, 연못이 있는 광산 김씨 종갓집으로 오래된 나무들이 많고 고풍스럽다.

지금까지 소개한 계룡시 명소 8곳을 시민들에 의해 선정되었지만 계룡대 군사보호구역내 위치한 신도내 주초석 및 석재, 계룡대 통일탑, 솟용추, 암용추 등은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없는 입장이다.

계룡시에서는 사전 출입허가를 신청 승인이 되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룡대와 협의 등 노력하고 있으나 솟용추, 암용추는 상수원 보호구역, 군 주요시설 지역으로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당분간 일반인들이 출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도내 주초석 및 석재, 계룡대 통일탑은 주변 군무기 전시시설과 함께 계룡시와 계룡대 협력 사업으로 신도내 주초석 주변을 정리, 정비하여 휴게시설, 공원 등을 두루 갖추어 역사 문화 공원, 안보 교육장으로 개발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여 관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